라틴아메리카: 반짝인다고 모두 하나의 ‘주기’는 아니다

마누엘 카넬라스

전 볼리비아 하원의원

원제와 출처: Manuel Canelas, “América Latina: no todo lo que brilla es un ‘ciclo’”, *Nueva Sociedad*, No. 299, mayo-junio de 2022, pp.35-43.

핵심어: 주기, 좌파로의 전환, 진보주의, 라틴아메리카

상당수 국가들에서 정치 스펙트럼상 좌파에 위치한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는 현상은 진보주의 정치 주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절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언젠가부터 일부 진보주의 세력들 사이에는 라틴아메리카가 ‘좌파로의 두 번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확신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처럼 단언하는 근거로 최근 선거에서 거둔 일련의 승리들을 일반적으로 제시해왔다. 지난 2년간 좌파가 선거에서 의미심장한 승리들을 거두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적으로 볼리비아에서 사회주의운동당(MAS)이 에보 모랄레스에 반대하는 쿠데타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 당선, 아르헨티나 중도좌파 페론주의의 승리,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승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념적인 단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 정보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좌와 우를 가릴 것 없이 선거 결과가 기정사실화된 이념적 방향성을 결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방향성은 애초 기대와는 실제로 상당한 괴리를 보이기도 한다. 두 가지 사례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와 에콰도르의 레닌 모레노다. 이런 점에서 주기라는 관점에서의 분석은 때로는 그 경향성을 과장하게 하고,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관통하는 긴장감을 포착할 능력을 잃게 하는 인식을 초래하기도 한다.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에서도 최근 수년간의 권력승계는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뿐만 아니라 각 부문 '본연의' 리더십이 갖는 단선적 연속성을 침해했다.

깨지는 작은 달걀들

알바로 우리베가 2010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 그는 그의 유명한 “세 개의 작은 달걀들”로 대변되는, 즉 민주적 안보, 투자자 신뢰, 사회 통합이라는 유산을 넘겨주었다. 이 승계는 그의 유산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이자 전 국방부 장관에게 통치권을 이양한다는 의미였다. 이 작은 달걀들은 산토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경계 지었고, 우리베주의 주도권의 주축들이 투명 잉크로 새겨져 산토스에게 부합해 보이는 강인함의 징후와 선거 승리를 안겨 주었다. 그렇지만 우리베가 상상했던 각본과 후견인 지위는 이 상징적 행위 이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우리베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산토

스로부터 비롯됐는데, 산토스는 강경파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정치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우리베에게 도전장을 던졌고, 그들의 관계는 요란하게 파국을 맞은 채 결국 산토스는 공공연한 정치적 적이 되었다. 2014년 초반 한 공개 행사에서 우리베는 세 개의 깨진 달걀이 담긴 그릇을 올려두고, 작위적 몸짓을 숨기지 않은 채 청중에게 산토스 정부가 이 달걀들을 다룰 줄 아는지 물었다. 이에 청중은 단호히 “아니요”를 외쳤고, 우리베는 “그자들이 모조리 깨트렸습니다. 이제 토르티야 한 장 구울 한 알조차도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응답했다. 산토스는 한때 자신도 일원이었던 콜롬비아 강경 우파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독자적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전임자들이 총력전을 선언했던 각 지역 좌파 세력들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평화협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자, 우리베주의는 이반 두케를 선두에 내세워 호전적인 ‘반대’ 캠페인을 고강도로 전개했다. 결국 근소한 표차로 ‘반대’가 승리했고, 우리베는 자신의 위대한 경쟁자에게 패배를 안길 수 있었음에 자축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승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기회들을 آیا갔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산토스는 투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어떻게든 협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산토스는 긍정적인 해결에 도달했으며, 그 결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콜롬비아의 폭력 종식에 있어 중대한 성과를 의미했다.

레닌 모레노는 국가연합당(Alianza País) 창당 초기부터 정당의 핵심 구성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라파엘 코레아 정부의 부통령이었다. 2017년 대선에서 모레노는 가까운 친구이자 마찬가지로 코레아 정부에서 부통령직을 역임했던 호르헤 글라스를 러닝메이트로 공식 지명했다. 이 둘의 조합은 코레아 집권 후반기

불만을 표출했지만 자치에의 열망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던 특정 부문들을 포섭할 만한 대중적 정치 경력의 소유자와 당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의 결합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한 길을 걷던 역사적 지도자의 업적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 모두 그 시대의 주역들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우파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에콰도르 우파 후보들 역시 팽팽한 긴장감 속에 1차와 2차 투표를 치렀고, 모레노의 승리를 목적으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선거운동을 강력히 펼쳤다. 우파 세력으로부터의 공세는 내부의 차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이후 노출될 수 있었을 유형의 분열로는 나가지 않게 하는 듯 했다. 모레노의 승리는 코레아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당연시되었고, 이는 에콰도르로 볼 때는 진보주의 주기의 연속이었고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지역 차원에서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사실 코레아, 모레노, 글라스가 한 무대에 서서 러닝메이트를 공식 발표하던 자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모레노는 청중에게 글라스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언급했다. 그는 자신과도 친분이 있던 한 청년으로부터 에콰도르를 통치한다는 복잡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질문을 받자, 호르헤 글라스가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훨씬 확고하고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에 직면하겠다고 여러 차례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별, 이어 모레노의 행보에 극단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모레노 집권을 지역 진보주의 강화로 여겼던 이들은 이내 실망했다. 수차례 감찰을 거쳐 글라스는 직위에서 파면되었고, 바로 수감되었다. 모레노는 신자유주의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코레아와 그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고,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결정들에서 자신 역시 부차적인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그 결정

들을 문제 삼았다. 지역 정치에서 그는 좌파 정부들에 맞섰고, 남미국가연합(UNASUR)을 철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키토 주재 본부를 폐쇄했고, 더 나아가 미국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다양한 기관들에서 집계한 모레노 정부에 대한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불만 여론, 그리고 2021년 대선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도 배출하지 못한 모레노와 그 측근들의 무능을 감안하면 모레노 정부는 산토스의 경우와는 달리 그 평가가 긍정적이거나 유의미한 측면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아주의에 그가 가한 타격은 의미 있었고, 코레아주의의 대선 후보와 러닝메이트는 2021년 1차 투표에서 1위를 달렸음에도 2차 투표에서 기예르모 라소에게 패배했다. 어쨌든 비록 다른 이유에서였지만 이들은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나 볼리비아의 MAS와는 달리 영향력을 충분히 만회하지 못했고, 결국 정권 탈환에 실패했다.

페루에서는 최근의 전례로 오얀타 우말라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비슷한 강도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 유사한 전환을 가져왔다. 그의 승리는 페루를 좌파로 이끄는 듯했고, 우말라 행정부는 페루 좌파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중량감을 갖는 인물들로 첫 내각을 꾸렸다. 하지만 그가 다른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근 페루 좌파들의 상당수는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의 행보를 당혹감과 두려움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 이유는 벌써 일종의 기시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며, 심지어 더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 후안 마누엘 로블레스는 트위터에 “우리는 카스티요가 오얀타 버전 2가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실상은 오얀타 나쁜 버전 0.2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언급했다.

케이코 후지모리에 맞서 카스티요가 불과 44,00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거둔 승리는 페루 정부에서 카스티요의 등장, 다시 말해 불과 몇 달 전까지도

국민 대다수에게 무명의 시골 교사에 불과했던 인물이 전국적인 더 나아가 지역 전반에서 좌파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회복을 담론으로 내세우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작은 서사를 부여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부터 에보 모랄레스에 이르기까지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주의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그를 환영했고, 그의 승리에 대해 지역에서 두 번째 진보주의 주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로 찬사가 쏟아졌다. 그렇지만 취임 9개월 만에 카스티요는 이미 네 차례나 내각을 교체했고, 그가 초기에 주창했던 심도 깊은 변화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베로니카 멘도사와 아벨리노 기옌을 비롯한 좌파 세력 상당수와 의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다.

그들 다수에게 있어 카스티요 정부는 더 이상 분명한 진보주의로 거론될 수 없다. 심지어 정부를 지지하거나 행정부에 관련된 인물들조차도 카스티요 정부의 의미는 논란의 대상이며, 이 싸움을 내부에서부터 해나가는 편이 낫다고 언급한다. 어떻게 봐도 처음 내렸던 정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페드로 프랑케를 대신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지명된 오스카 그라함의 경우처럼 카스티요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임명된 일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보다 중도적이거나 심지어 보수적인 색채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페루는 볼리비아, 멕시코, 또는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미주기구와 그리고 사무 총장 루이스 알마그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태평양동맹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11) 참여의사도 명확히 밝혀왔다. 리마 그룹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카스티요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는 거리를 유지해왔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그 어떤 협상을 이끌어낼 능력도 부족함에 따라 시위가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정부와 주도권?

이 좌파 세력들을 전부 하나의 진보주의 물결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 각자의 입장에 미묘하고도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기란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최근 선거에서 승리했거나, 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좌파 세력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칠레 대선에서 당선되기 한참 전에도 가브리엘 보리치는 이미 마두로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당선 후 그의 태도는 놀라울 것은 없다. 하지만 향후 변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통령 신분으로서,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명확히 드러낸 상황에서, 더 나아가 베네수엘라가 상대적으로 안정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왔음을 고려하면 그가 비판의 수위를 낮추려는 유혹을 느끼리라고 기대하는 의견도 가능하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전반에서는 다양한 국제 감시단체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여러 선거들이 치러졌고, 이 중에는 차베스주의 세력이 패배한 선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차베스주의자들은 일부 예상과는 반대로 선거 패배를 즉각적으로 인정했고, 이는 바리나스 주와 같은 역사적 경합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정부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는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에 석유 제재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일부 시사했고, 교섭 담당자들을 파견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리치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하원의원 시절부터 견지해왔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하나의 체제 유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며, 마두로 정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고, 5백 만 명 이상의 난민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 이 난민들의 상당수가 칠레로 이주해 왔으며, 이는 칠레의 정치적 긴장과 북부 지역에서 외국인 혐오증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상대로 여기에 대해 지역 정계 곳곳에서 반응했다. 에콰도르 전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 아르헨티나 지식인이자 현재 공산당 당대표인 아틸리오 보론, 베네수엘라 전 외교부장관이자 우고 차베스의 사위인 호르헤 아레이사는 이 짧은 칠레 수장을 비판했다. 보론은 그가 기초 역사 수업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고,¹⁾ 아레이사는 트위터에 “과도한 망상에 빠진 좌파들이 있는데, 미국에 가장 시달려온 민중들의 저항과 용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하등 다를 바 없으리라는 점을 망각한다.”라고 썼다. 아레이사의 트윗에, 칠레 공산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급진좌파연합(Apruebo Dignidad) 예비 선거에서 보리치와 경쟁했던 다니엘 하두에는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신의 향후 행보에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라고 동조했다.

베네수엘라인들이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인근 국가들에 대거 이주함에 따라 기존에는 서로 다른 국가들의 정치 엘리트들 간 이념적 논쟁에 불과했을 사안들이 이제는 중요한 국내 정치 사안이 되었다.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의 존재는 이 국가들의 국내 정치 이슈를 바꿔놓았고, 베네수엘라인 이웃, 고객, 동료들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은 광범위한 층위의 국민들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대중화시킨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원칙적으로 같은 궤도에 있는 정부들조차도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은 이런 사실에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사실상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진보주의 주기의 시작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현상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 아틸리오 보론, “긴급: 미국산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식민주의, 제국주의, 국제관계사에 대한 수업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2022년 1월 22일 트위터에 게시.

오늘날 보리치, 카스티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마두로 정부뿐만 아니라 쿠바 정부, 니카라과 정부와 많은 일을 아니 몇 가지 일이라도 함께 하는 상황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로 상황인데, 구스타보 페트로는 비록 보리치만큼 혹독하게는 아닐지라도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밝혔다. 마두로가 보리치와 카스티요를 좌파 겁쟁이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비난했을 때 콜롬비아 핵심 좌파 정당인 인간다운 콜롬비아당(Colombia Humana) 대표는 트위터에 “마두로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겁쟁이들은 민주주의를 포용한 이들이 아니다. 베네수엘라를 석유에서 구원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기 바란다. 회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적었다.

첫 번째 ‘좌파로의 전환’에서도 각자 상이한 전략적 입지와 정치 문화 그리고 감수성들이 존재했었다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주의 정부들 간에는 좀 더 ‘사회민주적’이거나 ‘민주주의적’으로 경도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공통의 장과 긴밀한 결속력이 존재했고, 남아메리카의 경우 브라질의 ‘룰라주의자’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자’ 간에 그랬듯 지역 통합의 차원에서든 정당과 활동네트워크에서든 일정한 분업도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두 좌파들 사이에 중복되는 지점들이 바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이어졌던 진보주의 주기를 규정하는 특징들이며, 각 국가별로 그 세부적인 발생 시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오늘날 우리는 확장력은 보다 축소된 가운데 볼리바르 혁명의 담론들이 더욱 완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을 볼 수 있으며, 종종 상당한 내부적 차이를 가진 집단들의 연합체로 구성된(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그리고 현재로서는 더 낮은 강도로 칠레 등) 다양한 변이의 (중도)좌파들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두 번째 주기’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여러 선거 승리를 내세우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공통점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선거 이후나 각 정부의 구체적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일정 시기에 걸쳐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네라와 같이 우파가 수 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런 사실이 지역 내 보수주의 주기의 도래를 입증한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충분치 않았다. 특히 이 정부들이 내부적으로 실패했고, 그 이념적 조력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의욕이 별로 없었으며, 그다지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이 주기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한 요인들을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먼저 도널드 트럼프²⁾의 정책 효과로 인해 ‘세계화’가 시대와 동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사회단체들은 지난 주기에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신자유주의적’인 조치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좌파 세력들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선거에서의 자원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여러 국가들에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현상은 칠레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예외적 사례가 있다면 바로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들 수 있으며, 지역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남미국가연합(UNASUR) 해체를 위한 공동 대응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는 주목할 것이라고는 없었고, 남미 발전포럼(PROSUR)은 그저 열망을 담은 명칭만으로 남아있었다. 이 외에 일부 정부들은 다소 상승한 지지율로 버텼고(피네라 정부와 두케 정부), 어떤 정부는 재선의 의지조차 꺾어버린 경제 위기를 겪어냈다(마크리 정부).

차베스, 모랄레스, 코레아, 룰라 다 시우바와 지우마 호세프, 키르츠네르 부부

2) José A. Sanahuja y Jorge D. Rodríguez: "Veinte años de negociaciones Unión Europea-Mercosur. Del interregionalismo a la crisis de la globalización", Documento de Trabajo No 13/2019 (segunda época), Fundación Carolina, Madrid, 2019.

정부들은 재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쟁취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분명한 지배권을 행사했고,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환경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현재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과거 국회 과반 확보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적 지도자들 중 일부는 그들 정부에서 더 이상 공식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에보 모랄레스). 특히 중요한 점은 진보주의 집권당 내부의 갈등이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룰라 다 시우바와 같은 역사적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가 10월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좌파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에 복귀하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룰라는 이전 노동자당(PT)에게도 골칫거리였던, ‘생리학적’ 정치와 후견주의가 관통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브라질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생물학적 이유로 이 야금술사 같은 전직 대통령이 한 번 더 집권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여전히 위기와 강력한 저항에 시달리는 노동자당은 만일 집권에 성공한다면 그 기회를 활용해 룰라 다 시우바를 넘어서는 권력의 대안을 찾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마지막이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팬데믹의 여파로 시민들은 국가의 핵심 지도층을 향한 요구 수위를 높여 왔으며, 투표의 충성도는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지역 통합에 모험을 걸 상황이 아니다. 사실상 지난 2년 간 칠레, 페루, 또는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이주민과 관련한 외국인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힘든 정상회담이나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가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유발하기 어렵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기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루과이 대통령 루이스 라카예 포우가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얼마 남지 않은 안정적인 남아메리카 기구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를 추진하는 의도도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 멕시코가 팬데믹 기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공동체 (CELAC)의 의장국 지위를 맡지 않았다면, 이 기구도 살아남았으리라 믿기 힘들다. 멕시코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국가만이 자원 투입 역량과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강력한 통솔력을 발휘해 지역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갖는 이런 조직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은 잠재적인 ‘두 번째 진보주의 주기’의 타당성과 공고화라는 측면에서는 더 불리한 조건이다. 낙담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이념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중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주기’에 비해 좌파는 더 많은 정부들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주도권 사이에는 간극이 확산되고 있고, 연속적인 위기로 글로벌 환경은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동원을 위해 새로운 스토리를 창출해야하는 지역 진보주의의 상상력, 담론, 지도력은 약화되고 있다.

강정원 옮김